

예산군 양돈사업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화 타당성 조사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유 학 열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위원

hyyou@cni.re.kr

본 연구는 생산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예산군 양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가공, 유통, 체험 등이 결합된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함

CONTENTS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예산군 양돈산업 현황
3. 양돈산업 6차산업화 현황 분석
4. 6차산업화 타당성 분석
5. 결론 및 제언

요약

- 예산군은 우수 양돈 생산을 위한 AI센터 설립 등 고품질의 양돈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하지만 예산군 양돈산업은 생산단계에 머물고 있고 가공, 유통, 체험 등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예산군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타당성을 분석함.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예산군의 양돈산업은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4번째일 정도로 생산 규모도 크고 양질의 양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둘째, 현재 양돈산업은 사조, 동원, CJ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각 권역별 양돈협동조합이 가공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셋째,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사료, 종돈, 사양관리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예산군 지역 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으로 양돈 농가의 투자도 쉽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예산군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고품질 양돈 생산, 환경관리, 사료의 안정수급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0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축산업은 최근 탄소중립,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기는 하지만 수직계열화(사육, 도축, 가공, 유통 등)가 이미 구축된 고도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
 - 따라서 6차산업을 통한 지역 축산농가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돼지고기는 유통비용이 48.7%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수입산 돼지고기와의 경쟁도 불가피하여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6차산업화가 필요함¹⁾
- 예산군은 우수 양돈 생산을 위한 AI센터(예산군 신양면 소재) 설립 등을 통해 고품질 양돈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하지만 예산군 양돈산업은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어 가공, 유통, 체험 등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현재 양돈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기업과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의 가공, 유통, 판매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조, 동원, CJ, 하림 등이 양돈산업에 참여하고 있고 권역별로 대전충남양돈조합(포크빌), 도드람양돈농협(도드람포크), 부경양돈

1) 박현욱, '주요 축산물 유통비용률 평년과 비슷', 농축유통신문, 2022.04.07.

- 농협(포크밸리), 대구경북양돈농협(올드림한돈)이 양돈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인삼포크, 정육각 등 신생 영농조합과 유통기업이 시장에 진출함

2. 연구 목적

- 예산군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
 - 예산군 양돈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군 자체의 고품질 양돈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이 융복합된 6차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산군 양돈산업이 6차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

02

예산군 양돈산업 현황

1. 국내 돼지 사육 및 수급 현황

- 지난 30년 동안의 양돈사육 현황을 보면, 사육농가는 크게 준 반면, 농가당 사육마릿수는 크게 증가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육류 중 최고임
 - 1990년에서 2021년 사이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는 441만 마리에서 1,125만 마리로 2.55배 증가함. 반면, 같은 기간 농장수는 14만 호에서 6,132호, 약 4.4%로 축소됨
 - 농가수가 감소한 데에는 농가당 사육마릿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1990년 농가당 사육마릿수는 31마리이었으나 2021년에는 1,834마리로 약 59.2배 증가함
 - 참고로 양돈의 사육 규모화는 점점 증가해 계열화율은 34.3%에 달하고 1인당 소비량은 27.6kg으로 육류 중 최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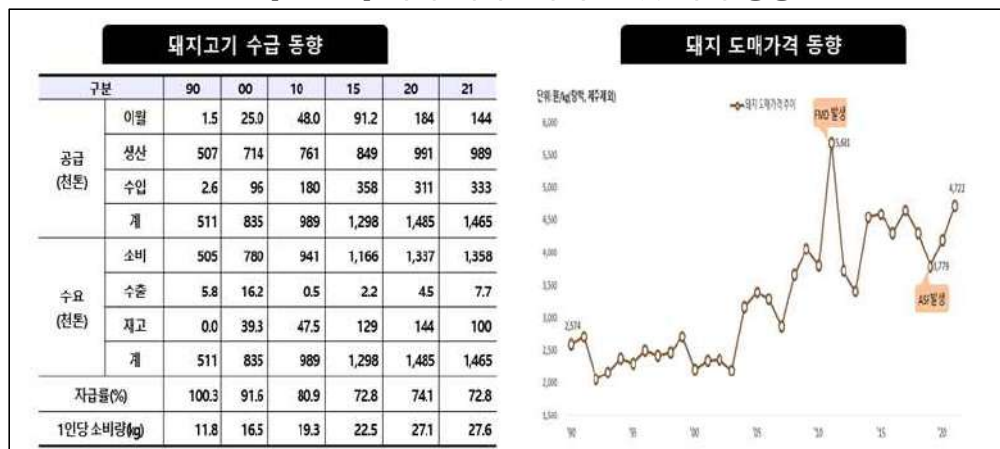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돼지 사육 현황



자료: 이형우, 2022. “양돈과 가금 수급 동향”. 예산군. 「축산발전 방향 모색 및 주민 공청회」 (2022.6.14.~15) 자료집

- 지난 30년 동안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은 2.9배 증가한 반면, 자급률은 27.5%로 하락함. 이는 1인당 소비량이 2.3배 증가했기 때문임
 - 1990년에서 2021년 사이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은 51.1만 톤에서 146.5만 톤으로 2.9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급률은 100.3%에서 72.8%로 27.5% 감소함. 이와 같은 결과는 1인당 소비량은 같은 기간 11.8kg에서 27.6kg으로 2.3배 증가했기 때문임
 - 1990~2021년 사이 FMD, ASF 발생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급등과 급락 현상을 보임

[그림 2] 국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자료: 이형우, 2022. “양돈과 가금 수급 동향”. 예산군. 「축산발전 방향 모색 및 주민 공청회」 (2022.6.14.~15) 자료집

2. 예산군 양돈산업 현황

- 2022년 예산군 양돈사업 관련 예산지출은 분뇨처리, 방역·질병 등 제반 지원 영역에 치우치고 벨류체인 영역은 전무함
 - 2022년 예산군 축수산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생산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반 지원 영역이 12,588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3%를 차지함. 반면, 축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벨류체인 영역은 6,695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7%를 차지함

- 양돈의 경우, 제반지원 영역으로는 분뇨처리 100백만 원, 방역·질병 686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함. 양돈에서 벨류체인 영역 예산은 전무함

[표 1] 2022년 예산군 축수산사업 시행지침 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벨류체인 영역					제반지원 영역						합 계	비 중
	사육	사체처리	상품화	유통·출하	브랜드(마케팅)	재해보험	분뇨처리	인증	냄새개선	조사료	방역·질병		
소		18		159						1,830	604	2,611	12.9%
한우	644			3,000	681							4,325	21.3%
육우	64											64	0.3%
젖소	723		47									770	3.8%
돼지	726						100				686	1,512	7.5%
염소	5											5	0.0%
양봉	433		170									603	3.0%
사슴	87											87	0.4%
가금	718										219	937	4.6%
산란계											40	40	0.2%
곤충	35											35	0.2%
복수축종	10	175									582	767	3.8%
전체축종						1,500	2,106	41	1,260		3,620	8,527	42.0%
합 계	3,445	193	217	3,159	681	1,500	2,206	41	1,260	1,830	5,751	20,283	100.0%
비 중	17.0%	1.0%	1.1%	15.6%	3.4%	7.4%	10.9%	0.2%	6.2%	9.0%	28.4%	100.0%	

주: 2022년 축수산사업시행지침 기준, 수산분야 716백만원 제외. 예산한우 경매시장 이전지원 추경(2,000→3,000) 반영

자료: 예산군. 2022.6. 예산군 축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주요 이슈와 현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2020년 기준 예산군 돼지 사육 규모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4위를 차지함

- 2020년 기준 충청남도 돼지 사육 현황을 보면, 돼지사육 농가는 616가구, 사육두수는 1,420,399마리임
- 예산군은 사육농가는 52농가, 사육두수는 155,637마리로 충청남도 전체 사육두수의 11.0%를 차지함. 이는 홍성군 31.1%, 천안시 13.3%, 당진시 11.0%(155,647마리)에 이어 네 번째임

[표 2] 2020년 충청남도 돼지 사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육두수별 가구수											총마리수 (마리)	비율
	돼지사육규모 별농가: 계 (가구)	1~9 9 (가구)	100 ~29 9 (가구)	300 ~49 9 (가구)	500 ~99 9 (가구)	100 0~1 999 (가구)	200 0~2 999 (가구)	300 0~3 999 (가구)	400 0~4 999 (가구)	500 0~9 999 (가구)	10000 마리 이상 (가구)		
충청남도	616	22	30	34	96	179	106	62	23	47	17	1,420,399	100.0%
천안시	53	-	1	1	12	15	14	3	-	3	4	188,260	13.3%
공주시	34	1	-	1	5	11	5	6	1	3	1	85,783	6.0%
보령시	39	1	2	3	1	13	6	6	4	3	-	87,185	6.1%
아산시	36	1	1	-	9	8	12	3	1	1	-	66,110	4.7%
서산시	14	-	1	-	4	4	2	1	-	1	1	33,106	2.3%
논산시	45	3	4	2	9	7	10	2	3	4	1	95,121	6.7%
계룡시	2	1	-	-	-	-	-	1	-	-	-	3,030	0.2%
당진시	82	5	9	8	13	27	4	3	3	7	3	155,647	11.0%
금산군	4	2	1	-	-	1	-	-	-	-	-	1,612	0.1%
부여군	18	-	1	1	3	2	8	1	-	2	-	37,690	2.7%
서천군	12	2	-	-	2	5	1	-	1	1	-	21,638	1.5%
청양군	22	1	-	-	3	6	9	2	1	-	-	39,770	2.8%
홍성군	198	2	8	11	29	73	26	25	7	14	3	442,010	31.1%
예산군	52	3	1	6	5	7	9	7	2	8	4	155,637	11.0%
태안군	5	-	1	1	1	-	-	2	-	-	-	7,800	0.5%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2020

● 최근 10년간 예산군 돼지사육을 보면, 농가수는 절반으로 줄어들했으나 총 사육두수는 거의 변함이 없음

- 2010~2020년 사이 충청남도의 돼지사육 농가수와 총 마리수는 각각 1,322가구, 1,589,929마리에서 616가구, 1,420,399마리로 농가수는 절반으로 줄어들했으나 총 사육두수는 약간 감소함
- 같은 기간 예산군의 돼지사육 농가수와 총 마리수는 103가구, 148,586마리에서 52가구 155,637마리로 농가수는 절반으로 줄어들했고 총 사육두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
- 같은 기간 충청남도에서 차지하는 예산군의 돼지사육 농가수와 총 마리수 비

율을 보면, 돼지사육 농가수 비율은 7.8%에서 8.4%로 0.6%p 증가했으나 2015년 9.4%에 비하면 0.8%p 감소함

- 반면 총 마리수는 9.3%에서 11.0%로 0.7%p 증가함. 그만큼 충남도내에서 예산군의 양돈산업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 3] 예산군 돼지사육 현황(2010-2020)

단위: 농가수, 마리수, %

구분	2010		2015		2020	
	돼지사육 농가수	총마리수	돼지사육 농가수	총마리수	돼지사육 농가수	총마리수
충청남도(A)	1,322	1,589,929	770	1,442,931	616	1,420,399
예산군(B)	103	148,586	72	156,012	52	155,637
비율(B/A)	7.8%	9.3%	9.4%	10.8%	8.4%	11.0%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2010, 2015, 2020

3. 예산군 양돈관련 단체 및 시설

1) 예산군 한돈협회 및 예산양돈영농조합

● 예산군 한돈협회

- 설립연도: 1984년 5월
- 설립목적: 양돈농가의 공동의 이익 도모와 양돈농가 간 친목도모
- 회원농가: 71농가(1984년 기준), 97농가(2021년 기준)
- 주소: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40번길 34 축산회관2층
- 2022년 전국 최우수지부 선정

● 예산양돈영농조합

- 설립연도: 2003년
- 회원농가: 약 40농가
- 설립목적: 양돈농가 간 경영 효율과 정보 및 경영노하우 공유
- 주소: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40번길 34 축산회관2층

2) 예산군 AI(인공수정 센터)센터

● AI센터 현황

- 위치: 신양면 예당남로 500-7
- 면적: 2동/559.79㎡
- 운영일: 2002. 12 ~ 현재
- 운영주체: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
- 직원현황: 4명(사무1, 배송1, 웅돈 관리2)
- 정액생산량/년: 36,000두분(100g/72,000팩 생산)
※ 인공수정 방법: 1일 2회/2팩 정액 주입
- 사육두수: 웅돈 83두
- 참여농가: 40농가(양돈농가)

● 설립 목적

- 국외 우수 종돈을 수입해 양돈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예산군 양돈의 품질 향상
※ 현재 캐나다 등에서 매년 우수 종돈 약 30두를 수입하고 있음

● 사업보조 내역

- 2018년부터 거의 매년 도비와 군비 보조(자부담 포함)를 통해 종돈을 구입하고 있음

[표 4] 예산군 AI(정액 등 처리업)센터 사업보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260,000	81,000	144,000	135,000
2018	양돈 생산 성 향상 기 반구축	종돈 구입비(30두) 정액심부 주입기 생 산포장기자재	180,000 (100%)	45,000 (25%)	90,000 (50%)	45,000 (25%)
2021	돼지 생산 성 향상	종돈 구입비 지원 (30두)	90,000 (100%)	18,000 (20%)	27,000 (30%)	45,000 (50%)
2022	돼지 생산 성 향상	종돈 구입비 지원 (30두)	90,000 (100%)	18,000 (20%)	27,000 (30%)	45,000 (50%)

자료: 예산군청 내부자료(2022)

3) 예산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현황

- 위치: 예산읍 예당평야로 92-50
- 초기 투자사업비: 30억 원
- 면적: 6630㎡(1만 5000톤 규모의 액비발효 저장조와 퇴비사 852㎡)
- 유기질 비료 생산량: 퇴비 20톤, 액비 105톤 등 하루 총 125톤
- 직원현황: 5명
- 운영일: 2009. 12~현재
- 운영주체: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

● 시설 특징

-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유기질비료 생산 과정에서 오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기 위해 액비시설과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함
- 악취방지 집진시설 설치

● 설치 효과

- 경종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약 20억 원의 화학비료 절감

03

양돈산업 6차산업화 현황 분석

1. 유통 부문²⁾

1) 유통 단계

● 출하단계

- 보통 생산자가 축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직접 출하는 경매출하, 유통주체와의 계약에 의한 직매출하로 구분
- * 생산자와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계약 시 등급별 정산 또는 지급률 정산으로 구분

● 도매 단계

- 도축장으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과정으로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서의 경매 반출,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의한 반출, 정육점 등 최종 소비자 소매단계로의 직 반출로 구분

● 소매 단계

- 일반 판매점인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과 외식 부분인 일반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으로 구분

2) 축산물품질평가원(2018) 보고서 참고해 정리

[그림 3] 돼지고기의 유통흐름



주1)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8.3. 2017 축산물유통실태, p.64.

● 현 상황 분석

- 양돈산업은 이미 수직계열화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6차산업을 위한 가공과 유통은 어렵지는 않음
- 하지만 가공단계에서의 소세지, 햄 등의 돼지고기 가공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축산농가가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 홍성 벨라몽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의 중소기업체가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쉽지 않음. 특히 가공시설(HACCP 포함) 설치·유지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농가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움

2)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비율

● 도매단계

- 식육포장처리업체(임가공 포함) 92.7%, 도축장 직반출 7.3%
- 도축장 직반출의 경우 정육점 7.3%

● 소매단계

- 대형마트 22.6%, 정육점 25.9%, 2차가공 및 기타 18.4%, 일반음식점 14.9%, 슈퍼마켓 11.9%, 단체급식소 5.4%, 백화점 0.9% 순

[그림 4]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주1) 도축형태에 따른 경매와 직매 구분

주2) 유통단계별 가격은 해당 유통단계의 경로별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값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8.3. 2017 축산물유통실태, p.70.

3) 충남도 소재 가축 도축장 운영 현황

● 2022년 4월 기준 전국의 가축 도축장은 74개이고 충남도에는 9개임. 그 중 1곳은 휴업 중임

- 돼지 기준 1일 도축 처리 능력을 보면,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유통센터와 대전충남양돈농협포크빌축산물공판장이 3,000두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사조산업(주)천안공장과 (주)홍주미트가 2,000두, 백제나루 영농조합법인이 1,800두로 나타남
- 충남도 소재 9개 도축장 가운데 소 도축과 병행하고 있는 곳은 6곳으로 나타났고 기타 종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9개 도축장 가운데 부여군 소재 동방식품산업 주식회사의 도축장은 휴업 중임

[표 5] 충남도 소재 가축 도축장 운영 현황(2022.4)

도축장명	소재지(주소)	도축 허가가축	도축 처리 능력(두/일)			정상영업 여부
			소	돼지	기타 축종별	
논산계룡축산업협 동조합 축산물유 통센터	논산시 연무읍 신 화길 35-2(안심리 698-3)	돼지		3,000		정상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축산물공판 장	천안시 동남구 성 남면 5산단 1로 81(대화리 317))	소,돼지	300	3,000		정상
백제나루 영농조 합법인	공주시 의당면 의 당로 216(청룡리 910)	소,돼지	195	1,800		정상
사조산업(주)천안공 장	천안시 직산읍 성 진로 378(판정리 137-9)	돼지		2,000		정상
(주)광축	서산시 팔봉면 팔 봉1로 115(어송리 805)	소,돼지, 말	100	1,000		정상
주식회사 동방식 품산업	부여군 구룡면 흥수 로 16	소,돼지				휴업
(주)홍주미트	홍성군 광천읍 홍 남로 578-46(상정리 539)	소,돼지	200	2,000		정상
중앙산업	예산군 삽교읍 윤 봉길로 1674(방아리 150-19)	소,돼지, 말,당나귀	160	1,000		정상
화정식품	논산시 지산2길 5 (지산동 501-15)	소,돼지, 말	80	800		정상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년 도축장·집유장 작업장 현황.

2. 양돈 6차산업화 사례

1) 돼지카페 마블로즈

(가) 설립 및 운영 개요³⁾

3) 스타트뉴스(2011.11.19.) “‘돼지카페 마블로즈’ 6차산업 모델로 뜬다”, 경향신문(2015.0506), “도·농 상생돼지카페 ‘마블로즈’를 아시나요” 등을 참고해 정리

- 돼지카페 마블로즈(이하 마블로즈)는 농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단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원이 초기에 투입됨

- 마블로즈는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보령시 청소면 소재 구 청웅중학교 폐교 부지(2만㎡)에 직영식당, 홍보관, 교육장, 체험관, 직영매장, 가공장, 농민장터 등 2,100㎡ 규모로 조성돼 2011년 10월부터 운영됨
- 돼지카페 마블로즈는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이 2009년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주로 사업단에서 개발한 ‘오메가3’ 함유 돼지고기와 소시지, 햄이 판매되며 체험도 겸함
- 마블로즈는 충남도와 보령시, 홍성군,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주)함컨설팅, 영농조합법인 농가원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진하는 융복합사업임

[그림 5] 돼지카페 마블로즈 단지안내도 및 홍보관·체험관



돼지카페 마블로즈 단지안내도

자료: 스타트뉴스(2011.11.19)



돼지카페 마블로즈 홍보관·체험관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1.10.14)

- 마블로즈는 유통단계의 축소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품질을 관리함
- 마블로즈는 기존의 7단계 유통단계인 ‘축산농가-도축장-경매장-도매-정육점-식당-소비자’를 4단계 유통단계인 ‘축산농가-도축장-마블로즈-소비자’로 줄이고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기의 질을 높임
-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햄 가공공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위생복과 위생모, 장화 착용과 손 세척, 알코올 소독, 에어샤워실(고속의 공기로 먼지·미생물을 제

거하는 시설)을 거쳐야 함

- 생산에서 포장까지 이물질의 혼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를 이중으로 만들고 출구와 입구도 분리하는 등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함

● 참고로 마블로즈는 양돈 ‘6차산업화의 교과서’로 불리는 일본 미에현 이가시 소재의 모쿠모쿠(もくもく)팜⁴⁾을 벤치마킹해 설립됨

- 모쿠모쿠 농장은 ‘6차산업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6차산업 성공사례임. 돼지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소시지, 햄 등 부가가치를 높이고, 체험, 숙박, 로컬푸드 판매까지 제공하는 농장임
- 1987년 지역농협 직원 두 명이 ‘햄 공장 모쿠모쿠’를 창업한 이후 레스토랑, 직매소,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축산 테마파크로서 유명해짐. 현재는 연 6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음
- 지역 내의 직접 고용자 수는 120여 명, 관련 종사자 수도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현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 채소, 화훼 등과 접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음

(나) 성과와 한계

● 마블로즈는 초기 양돈의 6차산업화 성공모델로 주목을 받음

- 마블로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농가의 협력, 사업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매출도 2011년 95억 원, 2012년 101억 원, 2013년 135억 원, 2014년 152억 원으로 오름

● 마블로즈의 성공요인은 리더의 전문성, 조직의 안정적 운영, 출자를 통한 적극적 사업 참여, 차별화된 사업구조, 수익구조 강화 등임

- 유재룡(2015)의 분석에 따르면, 돼지카페 마블로즈의 성공요인으로 리더의 전문성(미래예측, 선진축산 기법의 과감한 도입, 틈새시장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소시지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공장 가동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융합, 폐기 부산물의 사업화), 철저한 비즈니스마인드), 조직의 안정적 운영(산

4) 주성원, ‘日 모쿠모쿠 농장, 햄공장 체험교실에 식당-숙박 곁들여 연 600억 원 매출’, 동아일보, 2019.07.16.일자 보도 내용.

-관-학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내부역량강화 구조 확립), 출자를 통한 적극적 사업 참여, 차별화된 사업구조, 수익구조 강화 등을 제시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블로즈는 회원농가의 협력 부족, 시장 대응의 역부족, 소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블로즈의 초기 성공에 비해 현재 마블로즈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첫 번째 원인은 회원농가의 협력 부족임. 사업초기 정부의 지원과 회원농가의 투자로 양돈의 6차산업화를 시작했으나 정부사업이 완료된 이후 회원농가의 사업 참여는 저조하게 됨. 또한 양돈농가와 사업단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양돈농가가 양돈시세에 따라 판매처를 변경하면서 마블로즈 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함
- 두 번째 원인은 시장대응의 역부족임. 마블로즈가 지역브랜드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나 더 이상 확장하지는 못함. 대기업과 대규모 양돈조합에서 출시한 양돈브랜드가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해 마블로즈 브랜드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마지막으로 소비의 한계임. 보령과 홍성을 중심으로 한 양돈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은 접근성의 한계와 인구 규모의 한계로 소비를 확대하지 못함. 일부 마블로즈 전문점 개설을 통해서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됨

2) (주)금돈 돼지문화원⁵⁾

(가) 설립 및 운영 개요

● 설립 개요

- 1997년 금보농장으로부터 시작
- 2002년 유전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04년 (주)금보육종으로 법인 전환하여 전문 육종회사로 발전
- 2008년 '치악산금돈' 브랜드육을 출시하며 가공 및 유통사업으로 사업 확장
-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생산기반 90%가 소멸되는 안타까움 속에 양돈산업의

5) 돼지문화원 홈페이지(<http://www.돼지문화원.com/main>)와 정성훈 대표이사의 농축유통신문 인터뷰 내용(<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0>)을 참조해 정리함

인식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돼지를 테마로한 복합문화공간 '돼지 문화원' 설립하여 운영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융복합사업(6차산업)으로 발전

● 운영 현황

- 2011년12월2일 축산을 테마로 한 돼지문화원 개원을 통해 농축산업의 관광화, 직거래화, 상업농화 등을 추진
- 체험학습과도 연계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 현재 돼지문화원에는 농장, 유전자센터, 해피돔하우스(팬션), 동물공원, 휴식시설, 체험학습, 가공장체험, 돼지교육관, 세미나실을 운영하고 있음
- (주)금돈에서 직접 생산한 돼지고기는 발골, 가공 과정을 걸쳐 전국 50여개 매장으로 제품이 공급 중



[그림 6] 돼지문화원 홈페이지 전경



[그림 7] 돼지문화원 체험프로그램 안내

(나) 돼지문화원 6차산업의 원칙 및 성공요인

● 6차산업 원칙

- 종자부터 서비스까지 안심먹거리 제공
-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인력을 양성
- 즐겁게 일하고, 고객과 함께 행복을 추구

● 성공 요인

- 전문 육종회사로 1차산업 기반을 다짐
- 설립자(장성훈 대표)의 전문성, 창의성, 연구개발 노력 및 열정의 결실
- 정부의 6차산업화 정책을 이행하고 선도역할 수행
- 어린이들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와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문화 공간 마련

3) 유한회사 오노(小野)양돈

(가) 설립 및 운영 개요

● 회사 개요

- 설립: 1993년 9월
- 자본금: 3,300만 엔(약 3억 원)
- 소재지: 야마구치현(山口縣) 하기시(萩市)
- 종업원: 가족 4명, 상근직 4명, 비상근직 3명
- 농장 면적 및 규모: 17,000㎡, 약 1,800두 사육
- 농장 시설: 모돈(母豚)사 3동, 비육돈사 3동, 사료 창고 1동, 퇴비 창고 3동
- 사업 내용: 양돈 사육, 가공, 판매를 통한 6차산업화 추진
- 3대째 농장 경영(양돈 시작은 1955년부터)



[그림 8] 오노(小野)양돈 전경

● 사업 추진 기본 방향

- 궁극의 육질 맛 추구: 곡류 중심의 자사 배합사료와 유산균을 첨가한 사료 사용
- 안전, 안심 추구: 사료의 약 60%를 지역 내 eco-feed⁶⁾ 사용. 식품 재활용을 통한 지역자원 유효 이용, 궁극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추구
- 쾌적한 사육 환경 추구: 1두당 1.6㎡ 이상 확보, 스트레스 저감, 축사에서 나오는 유기질 자원의 토지 환원



(나) 성공 요인

● 지역 내 10개 법인이 참여하는 “양돈 자원순환 클러스터 협의회” 발족

- 법인 A(빵 제조업): 곡물 가루, 곡물 껍질, 채소 껍질 등 음식물쓰레기 제공
- 오노양돈: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하여 자사배합사료 제조, 양돈 사육, 축사 유기질 자원 생산
- 법인 B(돼지고기 판매): 오노양돈에서 사육되는 돼지고기 직판
- 법인 C(농가): 오노양돈에서 제공되는 유기질자원 활용, 지력회복



[그림 9] 양돈 자원순환 과정 예시(빵 제조업 유기 폐기물을 양돈 사료로 활용)

6) 재활용 음식물을 이용한 가축 사료

● 지역 내외 다채널의 판매처 확보

- 경영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 내외 돼지고기 전문 레스토랑, 식육점과 연계 판매처 확보
- 다양한 판매처를 통한 소비자 홍보 효과
- 농장 내 전용 매장 운영

●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안정적 경영 도모

- 정육 제품은 물론 다양한 가공 상품 개발 판매
- 농장 오리지널 제품 개발 판매: 찐빵, 손수건 등



[그림 10] 오노 양돈의 다양한 상품 개발(예시)

● 6차산업화 관련 수상 경력

- 6차산업화 농림수산성 장관상(2021년)
- eco feed 우수사례 농림수산성 장관상, 중앙축산회장상(2019년)

4) 유한회사 협동farm(Koyodo Farm)

(가) 설립 및 운영 개요

● 회사 개요

- 설립: 1968년(선대 양돈 시작년도)
- 자본금: 1,000만 엔(약 1억 원)
- 종업원: 상근, 비상근 포함 26명
- 소재지: 미야자키현(宮崎県) 가와미나미초(川南町)
- 사업 내용: 양돈 생산, 가공 판매, 숙박형농업연수 사업, 레스토랑 운영 등



[그림 11] Koyodo Farm 로고

● 사업 추진 기본 방향

- 돼지의 행복 추구: 사육 시 돼지에게 최대한 애정을 쏟음. 돼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힘을 존중하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추구. 최대한 돼지의 스트레스 줄이려고 노력
- 돼지의 건강 추구: 물, 사료, 위생 3대 요소 철저히 추구
- IoT 기술 적극 도입: 양돈 노동력의 저감, 생산성 향상, 자동 급수, 자동 온도 조절 등 스마트 기술 도입

● 농장 특징

- 제품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 관리 수법: 농장HACCP
- 돼지의 건강을 위한 천연수 공급 및 고농도산소 융합⁷⁾. 또한 유산균, 효모균 등을 배합한 수분 공급
- 자가 배합용 사료 공급
- 농장의 환경 관리 수법: JGAP(Japan Good Agriculture Practice) 인증



[그림 12] Koyodo Farm 농장 모습

(나) 성공 요인

● 다양한 제품 가공 생산

- 돼지 부위별 소량 포장 판매
- 햄, 소시지 등 다양한 가공품 생산 판매
- 선물용 세트상품 개발 판매

7) 고농도산소를 융합한 천연수를 공급하면 돼지 체내의 유용미생물이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강화됨



[그림 13] Koyodo Farm의 다양한 정육 제품 및 가공 제품 개발

● 농장 자체 온라인 숍 개설

- 온라인 숍을 통한 다양한 제품 판매(<http://marumiton-shop.com>)
- 정육류 6종류, 가공식품 6종류 등 총 92개 제품 판매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 및 홍보

- 농장 제품을 사용하는 레스토랑, 주점 등 연계: 27개 점포
- 아침 시장(비상설) 판매
- 농장 회원 모집: 다양한 혜택(제품 정보, 할인 쿠폰, 신속 택배 서비스 등) 제공



[그림 14] Koyodo Farm 농장제품 전용 아침시장 판매장 모습

● 6차산업화 관련 수상 경력

- 규슈오키나와 농업미래상 농업부문 수상(2017년)
- 요리왕국 100선 선정(2015년)

04

6차산업화 타당성 분석

1. 가공·유통부문

- 충남, 충북은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이 밀집되어 예산군 한돈협회 또는 예산양돈영농조합이 새롭게 진출하기 어려움
 - 예산군이 소재하고 있는 충남과 인근의 충북 지역은 양돈 밀집 사육지역으로 지역 내 도축장과 육가공시설이 포화된 상태임
 - 현재 대전충남양돈농협과 도드람양돈농협 등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 한돈협회 또는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 차원의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은 상태임

- 양돈은 전체 부위 중에 일부만 선호되고 나머지는 비선호 부위가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하더라도 수지가 맞지 않아 시장 진출이 어려움
 - 현재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은 소와 돼지를 함께 취급하는 추세임. 하지만 소나 돼지 한 품목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음
 - 특히 소는 도축을 해도 전 부위가 활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지만 돼지의 경우에는 주로 삼겹살과 목살만 시장에 유통되고 나머지는 거의 버려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도축을 많이 해도 수지가 맞지 않음
 - * 예를 들어 110kg짜리 돼지를 도축할 경우 50kg의 지육이 발생함. 이중 삼겹살 9~10kg, 목살 5kg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선호 부위임
 - 돼지의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가공산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음. 만두 등에 들어가는 돼지 가공육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육가공시설은 사료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사료회사는 사료판매 수익으로 육가공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만회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고기의 유통은 유효기간이 짧은 특성 때문에 유통업 진출이 쉽지 않음
 -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기의 유통은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보관시설이 필요하고 유통기한도 가급적 짧아야 좋음
 - 이러한 유통 환경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노하우가 필요함
- 또한 가공과 유통의 핵심은 균일한 제품의 안정적 공급인데 지역 차원에서 이를 맞추는 일은 쉽지 않음
 - 개별 농장을 통한 6차 산업 또는 규모화를 통한 6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품의 균일화임. 이를 위해서는 생산방식의 매뉴얼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어떠한 종돈을 활용할 것인가, 어떠한 사료를 이용할 것인가, 어떠한 형태의 구조와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 등 체계적인 매뉴얼화 필요)
 - 또한 HACCP 인증을 포함한 전 공정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관리 비용이 소요됨

2. 브랜드 부문

- 양돈 브랜드를 만들기는 쉬우나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움
 - 예산군 양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군 자체의 양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농축산물에서 브랜드는 만들기 쉬우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음. 또한 현재에도 많은 양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예산군이 새롭게 양돈 브랜드를 만든다고 해도 경쟁력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도드람한돈(도드람양돈농협)



포크빌(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밸리(부경양돈협동조합)



올드림한돈(대구경북양돈농협)

[그림 13] 국내 주요 양돈브랜드 및 생산유통기관(자료: 대한한돈협회)

● 최근 일부 영농조합 또는 양돈농협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출시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임

- 최근 인삼포크(도원진생원영농조합), 장군바이오(논산계룡축협) 등 소규모 영농조합과 축협 등에서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지수임
-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나 군단위 소규모 영농조합에서는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움



인삼포크(도원진생원영농조합)



장군바이오(논산계룡축협)

[그림 14] 국내 소규모 양돈브랜드 및 생산유통기관

- 영농조합 단위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품 등 특화된 특성 및 품질이 보장되어야 가능함
 - 도원진생원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고 무지개영농조합법인⁸⁾이 가공·판매하는 인삼포크의 경우 충남지역 특산품인 인삼과 건강에 좋은 셀레늄, 비타민E 등이 첨가된 인삼배합사료를 급여하여 생산됨⁹⁾
 - 이처럼 인삼포크가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삼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하고 셀레늄, 비타민E 등이 첨가된 특화된 배합사료 생산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임
 - 만약 예산군 양돈영농조합에서도 이와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많은 노력이 필요함

3. 협동·관리 부문

- 보통 양돈영농조합은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고 가공·유통분야 진출은 적음

8) 두 영농조합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함. 생산농가는 세종시, 논산시, 청주시(구 청원군) 등에 소재하며 모두 12농가임

9) 인삼포크 홈페이지(<http://www.ginsengpork.com/>) 참고해 정리

- 일반적으로 양돈영농조합은 사료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개별 농장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임
- 이 때문에 양돈영농조합이 가공 및 유통사업까지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 양돈관련 법인이 2·3차 산업으로 진출 시 양돈농가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양돈농가가 참여하는 양돈관련 2·3차 법인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양돈농가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임
- 양돈가격이 좋을 때는 개별 시장으로 판매하고 양돈 가격이 좋지 않을 때는 해당 법인에 판매를 강요하는 태도를 보임
- 이 때문에 양돈농가가 참여하는 양돈관련 가공·유통·체험관련 법인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또한 개별 양돈농가는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농가 간 단합이 쉽지 않음

● 양돈클러스터 등 정부보조사업 실행 시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유지되다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면 운영이 잘 안 됨

- 양돈산업의 고도화, 현대화를 위해 정부의 여러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보조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나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운영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건물과 시설만 남고 운영은 안 됨
- 정부보조사업 완료 후 개별 농가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경우 개별 농가의 사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결국 지자체 양돈산업의 가치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체험사업을 위해서는 양돈농가 신뢰 형성이 중요하나 현재 여건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확대는 쉽지 않는 상황임

05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예산군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는 생산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가공·유통·체험을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존 양돈관련 가공·유통사업의 포화로 새로운 진입은 어려움
 - 예산군 양돈산업의 6차산업을 위해서는 가공과 유통사업 진출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 양돈의 가공 및 유통사업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현재 국내 양돈산업은 대기업 계열인 사조산업, 동원, CJ 등이 진출해 있고,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바이오, 하림이 진출해 있음
 - 또한 대규모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드람양돈농협(도드람포크), 대전충남양돈농협(포크빌), 부경양돈협동조합(포크밸리), 서울경기양돈농협(허브한돈), 대구경북양돈농협(올드림한돈)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군 양돈농가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임
- 둘째, 예산군 양돈산업의 자체 브랜드 만들기가 쉽지 않음
 - 예산군 양돈산업의 6차산업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브랜드화가 필요함. 예산군 자체 양돈 브랜드를 위해서는 사료, 종돈, 사양관리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들 모두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양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만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역량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양돈농가에서 이를 감내하기는 쉽지 않음. 이 때문에 예산군 양돈농가는 기존의 대기업 또는 대규모 협동조합의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개별농장의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6차 산업의 정착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규모화를 이뤄내야 함. 결국 개별농가들이 하나의 결사체로 이어져야 하는데 양돈산업이 기존의 구제역, ASF 등 질병문제 때문에 집단화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브랜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품의 균일화도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개별 농가체제로는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음

● 셋째, 예산군 양돈협회, 예산양돈영농조합 회원농가의 관심 및 의지 저조

- 예산군 양돈산업이 생산에 그치지 않고 2·3차산업이 결합된 6차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군 양돈협회, 예산양돈영농조합의 비전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고 많은 자본 투자가 있어야 가능함
- 하지만 현재 양돈농가는 자체적인 가공과 유통산업 진출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6차산업화에 관심과 의지가 저조할 수밖에 없음
- 예산군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에 관심과 의지가 저조한 것은 양돈의 2·3차산업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임. 또한 현재 양돈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 대규모 협동조합 브랜드 등에 참여만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예산군 자체적인 브랜드 만들기에 관심이 저조함

●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로 곡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사료비 증가로 양돈산업의 2·3차산업 투자가 어려움

-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양돈농가의 사료비용이 급등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단시간 내에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임
-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양돈농가는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투자는 어려운 상태임

2. 제언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군 양돈산업 6차산업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현 시점에서 가공, 유통, 체험 등 6차산업화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고품질 양돈생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예산군의 양돈산업은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양돈생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규모화도 되어 있고 AI(인공수정센터) 등을 통해 우수 양돈 보급으로 품질도 양호해 생산단계에서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6차산업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고품질 양돈 생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만약 예산군이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에 의지가 있다면 유망농가 및 법인을 발굴해 지원·육성하고 예산군과 농가(법인) 주도의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는 결국 어느 정도 규모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 성공의 가장 큰 중심은 사업을 이끌어 나갈 사람, 즉 구심체가 가장 중요함. 지역에 품목농협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지 못함. 결국 생산자인 농민이 본인의 농장에서 벗어나서 함께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함
 -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는 산업의 특성상 몇몇 농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대부분의 6차산업이 성공한 사례는 결국 같은 생각을 가지는 팀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을 통해 회원,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산학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임
 - 최근 양돈산업의 성공적인 6차산업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금돈 돼지문화원 장성훈 대표이사의 경우 오랜 동안 양돈산업을 유지해 오면서 양돈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결합해 양돈산업의 6차산업화의 모델을 제시함. 예산군은 현 단계에서 돼지문화원이나 마블로즈 방식의 6차산업화는 어렵기 때문에 “지*

가”와 같이 규모는 작지만 내실있는 지역 내 양돈 융복합업체를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양돈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은 갈수록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6차산업화보다는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과 홍성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돈사육 밀집지역임.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해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임
- 현재 예산군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운영을 통해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을 줄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예산군 양돈산업은 가공, 유통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 개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로 사료의 수급불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군과 양돈농가 간 협력 대응체계 구축이 우선 필요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심화되어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
- 사료가격이 급등하면 규모화된 농장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두수 사육, 환경친화적 사육,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해 지역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는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이 발전한 지역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 유재룡. 2015. 농업6차산업화를 통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요인 분석: 보령시 ‘돼지카페 마블로즈’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예산군. 2022.6. 예산군 축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주요 이슈와 현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이형우. 2022. “양돈과 가금 수급 동향”. 예산군. 「축산발전 방향 모색 및 주민 공청회」(2022.6.14.~15) 자료집
- 축산물품질평가원. 2018.3. 2017 축산물유통실태.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
돼지문화원: <http://www.돼지문화원.com/customer/review>
(사)대한한돈협회: <https://www.koreapork.or.kr>
인삼포크: <http://www.ginsengpork.com>
일본 마루미톤숍: <https://marumiton-shop.com/>
일본 오노양돈: <https://mutsumibuta.com/>
일본 교도팜: <https://www.kyodo-farm.co.jp/company/>
통계청 가축통계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https://www.충남6차산업.com>

작성자: 박경철(kcpark@cni.re.kr)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